

“북핵 5개국 공동 목소리 낼 때”

李 대통령 방미 첫날... 힐러리 국무 등 연쇄 접견 게이츠 국방 “대북 관련 여러 대처방안 변경 기회”



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블레어하우스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최근 북핵문제와 관련, “(북한을 제외하곤) 6자회담 5개국이 공동의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블레어하우스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예방을 받고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보상받고 다시 대화를 되풀이하는 과거 방식은 더이상 통용될 수 없으며,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원칙에 입각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일련의 도발을 감행하고 있으나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며 대응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같은 장소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전략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 미국이 보여준 단호한 모습이 북핵 문제 해결에 큰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뒤 “미국과 동맹국들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기다리면 보상 받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북한의 생각이 통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이제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클린턴 장관도 “한·미·일 3국의 공조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의 이행과정에서도 관련국이 긴밀하게 공조해서 북한에 대해 잘못된 행동에는 응분의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오는 7월로 예정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북

한에 대한 대처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달 초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언급,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사다 현지에서 엄씨와 함께 일하던 한국인 의사가 시신 검안시 입회한 결과 엄씨의 시신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발견된 3구의 시신은 모두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신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얼굴로는 신원확인 이 어려웠으며 복장과 체형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사건의 배후에 대해서는 “반군 세력일수도, 알 카에다일수도 있다”면서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 무기를 약탈하기 위해 군 초소를 공격하다 시민 7명이 숨지고 상당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광장 주변 공공시설이 파괴됐다고 덧붙였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에 패한 개혁파 후보 미르 호세인 무사비비의 지지자들에 의해 주도된 이날 시위는 최대 200만명이 참가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지난 1979년 이슬람혁명 당시를 방불케 했다.

이와 관련, 검시사무소는 15일 시위와 관련된 사망자가 등록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한 소식통은 정부 당국이 사망자가 모두 8명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이달 10일 전후 극비 訪中”

특사 자격 후진타오 만나 에너지·식량 요청 중에 ‘北 후계자 내정’ 전달...중국측은 부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부상한 3남 정운씨가 지난 10일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극비리에 방문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또 정운씨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처음으로 회담함에 따라 그가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됐음이 중국측에 직접 전달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김 위원장과 가까운 북한 소식통과 베이징의 북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그러나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보도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측은 이같은 상황을 알

지 못한다”고 말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운씨는 지난 10일을 전후해 항공편으로 베이징을 방문했다. 후진타오 주석 이외에도 왕자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등 간부들과 잇달아 회담을 가졌다.

정운씨가 이미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지명돼, 조선노동당의 요직인 조직지도부장이 됐다는 것도 회담에 동석한 측근들로부터 중국측에 전달됐다.

후진타오 주석은 정운씨와의 회담에서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3차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중지를 요구하고 평화적인 수단으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등 현안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으며, 정운씨는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에 대비해 중국에 대해 에너지, 식량 긴급 지원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운씨는 베이징 방문을 마치고 광둥성 선전, 광저우도 방문해 하이테크 공장 등을 시찰했다. 이들 지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6년 1월 방중 시 찾았던 곳이다.

정운씨의 특사 파견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던 지난달 23일 이후인 5월 하순 노동당 간부가 중국을 방문해 타진해서 이뤄졌다.

북한 소식통은 “정운씨가 김 위원장의 명의(특사)로 첫 외교 행보를 장식한 것으로, (후계문제와 관련한) 중국과 북한간의 약속을 지켜가면서 핵실험으로 불쾌감을 표시한 중국측에 이해를 요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 반정부 시위 격화...7명 사망 “대북 수출 전면금지”

학생 등 200만명 “선거 불복”

이란에서 대선 결과에 반발하는 시위가 격화되면서 테헤란 도심에서 최소 7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현지 영어방송인 프레스TV는 전날 테헤란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 도중 인근 군 초소를 공격하려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시위대 7명이 사망했으며 수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란 관영 파압 라디오도 아자디 광장 인근에서 ‘폭력배’들이 시위 도

중 무기를 약탈하기 위해 군 초소를 공격하다 시민 7명이 숨지고 상당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광장 주변 공공시설이 파괴됐다고 덧붙였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에 패한 개혁파 후보 미르 호세인 무사비비의 지지자들에 의해 주도된 이날 시위는 최대 200만명이 참가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지난 1979년 이슬람혁명 당시를 방불케 했다.

이와 관련, 검시사무소는 15일 시위와 관련된 사망자가 등록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한 소식통은 정부 당국이 사망자가 모두 8명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16일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대한 대응조치로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결정했다.

북한에서의 수입은 지난 2006년 10월 핵실험에 대한 보복으로 전면 금지를 시킨 바 있어 이번 제재로 북한과의 무역이 모두 끊기게 됐다.

일본의 대북 수출은 2006년 1차 핵실험 때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거, 고급 식재료 등 24개 사치품목의 수출 금지를 취한 바 있어 지난해 수출 실적은 총 8억엔(약 850만달러)에 불과했다.

“예멘 한국인 테러에 분노와 경악”

정부, 피랍 엄영선씨 사망 확인

엄영선(34·여) 씨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또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분

You can!

10명 중 7명 합격률 신기록

7주 동안 70시간

편입영어 합격강좌

편입영어 100% 합격률 신기록

대학편입은 역시 김영 - www.kimyong.co.kr

2010년 KUI합격자수 1위 대학편입대학을 계속하라!

대학편입 설명회 일시: 6월 19일(토) 14시

광주광역시 금곡동 김영편입학원 (광주광역시 금곡동 40번지) 227-6088

대학편입이란?

성유권대학 전문대학 TOP-CLASS

자연계 편입을 위한 편입수칙 개설!

도전무한! 기량 7월 1일

문의 즉시 직접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홈페이지 구축 43년 노하우, 한국컴퓨터교육회 산하기업

홈페이지를 처음 구하시나요?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모르시나요?
한국컴퓨터교육회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2008년 업계 CD번호부 - 전화번호부

문의: 062) 512-1144

43년 전통의 한국전화번호부(주)

2008년 한국 사업계 CD번호부 판매왕!

한국전화번호부(주)는 43년 전통의 전화번호부 전문기업입니다. 전국 100만여 가구의 전화번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신 정보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전화번호부(주)
대표이사: 김민준 | 연락처: 062-512-1144, 090-2772-1144